

# 청소년의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의 관계 연구

—DIT 점수와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정 문 성\*  
구 정 화\*\*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III. 연구방법
- IV. 결과분석 및 논의
- V. 요약 및 결론

## I. 서 론

도덕에 있어서 지행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학문적 관심이 되어 왔다. 특히 도덕적 '지'가 왜 도덕적 '행'으로 실천되지 않는가의 물음은 주로 철학, 윤리학의 관심이었 고, 도덕적 '행'은 어디까지나 의지의 문제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경험과학의 발달과 함께 도덕적 '지'와 '행'의 문제를 경험과학적으로 접근

근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세 가지 접근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박찬주, 1989: 1). 즉 정신분석학적 접근,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적 접근법이 그것이다.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도덕적 행동을 여러 인성적 작용 *personality agencies*과의 갈등 속에서 초자아 *super ego*의 상대적 우세의 결과로 보며,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도덕적 행동을 습관, 즉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학습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인지발달론에서는 도덕적 사고의 발달이 도덕적 행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도덕적 사고와 행동에 관한 두 개의 종합적 연구는 사회학습이론과

\* 한국 청소년연구원 연구원

\*\*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박사과정

인지발달론의 도덕적 지행에 관한 상반된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문용린, 1988a:147). 즉 Mischel & Mischel(1976)은 성격, 지능, 적성 등 일반능력과 사회적 학습의 경험이 도덕적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는데 비하여 Blasi(1980)는 도덕적 사고의 발달이 도덕적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인지발달론적 관점에서 도덕적 사고의 발달과 도덕적 행동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인지발달론적 관점에서의 도덕적 사고의 발달과 도덕적 행동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고, 그 중에는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도덕적 사고의 발달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도덕적 사고와 행동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 연구도 있었다(Blasi, 1980:13-15; Rest, 1986:136-144; 박찬주, 1989; 정향인, 1989). 그러한 경우에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소년원 등 범법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잠재적인 비행청소년, 즉 제도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비교적 그 비행의 정도가 약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문제 행동이 청소년 범죄와 같이 도덕 판단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지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인지발달론적 입장에서 볼 때 문제행동을 도덕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또는 도덕적 차원과는 다른-예를 들면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도덕판단수준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분석을 통해서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문제행동의 개념과 유형

문제행동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사회 체제속에서 정당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공유되는 제도화된 기제들을 위반 하는 것(Cohen, 1959:462)’, ‘사회속에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동(Merton, 1961:723-724)’, ‘지역사회의 인내한계를 충분히 초과하는 정도의 행동으로서 동의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행해진 행동(Clinard, 1963:22)’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이들 개념정의를 포괄할 수 있는 넓은 의미에서 문제행동의 특징은 Docking의 개념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Docking은 좋은 행동의 정의를 다음의 셋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데 첫째,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동, 둘째 자기 통제적인 행동, 셋째 책임있는 행동을 들고 있다(Docking, 1989:6-8). 여기에서 유추를 해보면, 문제행동은 위의 좋은 행동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문제행동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행동, 무책임한 행동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행, 문제행동, 일탈행동, 이상행동, 부적응 행동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쓰이고는 있지만 넓은 의미의 문제행동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행동, 무책임한 행동으로서, 일탈, 비행, 범죄 행위들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범죄보다는 비교적 강도가 약한 가벼운 비행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다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문제행동은 크게 반사회적 문제행동과 비사회적 문제행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반사회적 문제행동은 사회규범에 위반되는 행동으로서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방해하는 행동이며, 비사회적 문제행동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자 스스로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건강과 정서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일본 총무청 청소년 대책본부, 1990 : 5-6).

또한 Merton은 문제행동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Merton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주어진 사회의 각종 규범에 적응하여 나가는 개인의 적응양식에 있어 문제행동을 혁신형 *innovation*, 의례형 *ritualism*, 퇴행형 *retreatism*, 반역형 *rebellion*으로 분류하였다. 혁신형은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것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목표의 성취를 추구하는 양식이며, 의례형은 문화적 목표는 거부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수용하는 기계적이고 의례적인 행동양식이다. 퇴행형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도피해 버리는 양식으로 약물중독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반역형은 기존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함과 동시에 새로운 목표와 수단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운동가나 혁명가 집단에서 나타나는 양식이다(최윤진·구창모·정문성, 1990 : 30-31).

Dubin은 Merton의 네 양식을 더욱 상세화하여 14가지 양식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Dubin, 1959 : 149).

한편 Kantner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비행의 종류를 재산성 폭력, 비재산성 폭력, 약물관련 비행, 무폭력 재산성 비행의 네 범주로

<표 1> 아노미 상태에 있어서 개인의 적응양식

문제행동의 적응양식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혁신형	+	-
의례형	-	+
퇴행형	-	-
반역형	±	±

+ 수용 - 거절 ± 거절 또는 대체(적극적 거절)

분류하기도 하였다(Kantner, 1975).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심영희가 Merton의 아노미 이론 중 혁신, 퇴행형, 반역형의 세 가지 적응양식과 Cloward & Ohlin의 하위문화이론에서 범죄문화, 갈등문화, 은둔문화의 세 범주의 분류에 근거하여 재산 비행(절도, 강도 등), 폭력적 비행(주먹 싸움, 패싸움, 건물·기물 파손 등), 은둔적 비행(음주, 환각제 사용, 성관계, 흡연, 금지장소 출입, 노름 등), 의도적 반항(무단 결석, 가출, 정학 및 부모에 대한 반항 등)으로 분류하여 근로청소년과 학생청소년을 비교 연구한 바 있다(심영희, 1981 : 87).

또한 최윤진·구창모·정문성은 문제행동을 학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 건강을 해치는 행동, 학교규칙이나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행동, 나쁜 습관이나 중독의 위험성이 있는 행동,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최윤진·구창모·정문성, 1990 : 143).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행동, 무책임한 행동으로서, 비교적 범죄보다는 강도가 약한 비행으로 규정하고, 심영희(1981), 최윤진·구창모·정문성(19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 이성진·박성수(1984) 등에서 사용된 문제행동 유형을 토대로 연구자가

<표 2> 문제행동의 유형

문제행동 유형	구체적인 문제행동
재산형 문제행동	부모속여 돈타내기, 절도, 강도, 노름
폭력적 문제행동	전화폭언, 흉기소지, 집단싸움, 폭행, 공공기물파손
은둔적 문제행동	음주, 흡연, 약물복용, 디스코장 출입
반항적 문제행동	가출, 무단결석
성적인 문제행동	사창가 출입, 성관계, 음란물 소지, 음란비디오 보기, 회롱
비열한 문제행동	퀵닝

설정된 개념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21개의 유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 유형의 분류는 심영희의 네 가지 분류에 성적인 문제행동과 비열한 문제행동을 추가하여 분석 틀로 사용하였다. 성적인 문제행동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비중있는 문제행동 유형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였으며, 비열한 행동(퀵닝)은 특히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흔하게 행해지고 또한 목격되는 문제행동이며 다른 유형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였다(표 2 참조). 그리고 심영희와 달리 노름은 재산형 문제 행동에 분류하였다.

## 2. Kohlberg의 도덕 발달론과 Rest의 DIT

Puka가 Kohlberg이론의 힘과 독창성은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방식 모두를 융합시킴으로써 관찰자료로부터 이론을 건설하려는 시도에 있다고 한 것 처럼 Kohlberg의 도덕 발달론은 철학적인 문제에 심리학을 결합시킨 것이다(Puka, 1981: 468). 그는 심리학에 있어 Piaget의 인지발달론에 영향을 받았다.

Piaget가 도덕성의 발달을 논할 때 그것은

인지발달의 기초하에 가능하다. 그는 도덕성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규칙을 근거로 하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판단 능력으로 보고 개인의 도덕적 발달은 개인이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추명환, 1987: 16-17).

Piaget는 아동들이 놀이규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관찰하면서 그들의 도덕성 발달과정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숙한 도덕판단이 더 빈번히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해서 Piaget는 도덕적 판단을 통해서 인지구조를 추리할 수 있고 이 인지구조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발달한다는 도덕성에 대한 인지발달론적 접근의 토대를 세웠다. 그러나 인지 구조 자체의 성격과 발달의 논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문용린, 1988a).

그 후 Piaget의 이론은 한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Kohlberg(1958)에 의해 더욱 심화, 발전되었다. Kohlberg에 있어 도덕성은 도덕 판단과 관련된다. 도덕 판단은 도덕행위의 선행조건이며 다만 도덕 판단이 도덕행위의 필요조건이기는 하되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Kohlberg에게 있어 도덕성이란 불리는 진정한 요소는 어떤 행동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과정으로서의 도덕적 추론 *moral reasoning*의 능력이다. 이 도덕적 추론은 근본적으로 인지구조를 갖는다. 이 판단의 구조는 우리가 갈등상황에 처할 때에 그것을 해석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논리'의 구조를 일컫는다. 따라서 Kohlberg의 도덕 발달론에서 인지적 가설이란 기본적으로 도덕적 판단은 주어진 단계의 특성적 형식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이 형식은 그와 대응하는 단계의 지적 판단의 형식과 병행하는 것이다(김보소·김진남(역),

&lt;표 3&gt;

Kohlberg 의 도덕판단단계

도덕판단수준	사회적 조망	도덕 판단 단계
I. 인습이전	구체적인 개인적 조망	1. 처벌과 복종의 오리엔테이션
		2. 도구적 상대주의자의 오리엔테이션
II. 인습적	사회구성원적 조망	3. 사람들 상호간의 동조 혹은 '착한아이'오리엔테이션
		4. 사회유지의 오리엔테이션
III. 원리적	사회선행적 조망	5. 사회계약의 오리엔테이션
		6. 보편적 윤리적 원리의 오리엔테이션

1985 : 187).

Kohlberg는 도덕 판단의 발달을 20년간의 종, 횡단적 연구를 통하여 3수준, 6단계로 나누어 <표 3>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현실, 1988)

Kohlberg는 피험자들에게 도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갈등 상황을 제시한 후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묻고 그 반응을 분석하여 그들이 내린 사고 방식으로 도덕 발달 단계를 설정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6단계 이론의 검증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한편으로는 수정, 보완하려고 하였다(Scott, 1987 : 257-273).

특히 이 이론의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도덕 판단 채점방식의 신뢰도와 타당도였다. 면담에서 생기는 채점의 주관성, 집단 검사의 어려움, 긴 면담시간 등의 문제가 해결하기 힘든 과제로 남아 있었다(문용린, 1988a ; 박찬주, 1989).

이를 극복하기 위해 Rest(1974)는 Kohlberg의 이론적 전제를 받아 들이면서 Kohlberg의 주관식 검사를 객관식 검사로 바꾸어 Defining Issues Test(DIT)를 개발하였다. Rest의 DIT는 Piaget나 Kohlberg식 검사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고 타

당성 있는 도덕성의 측정을 하고자 하였다.

DIT의 채점결과는 개인당 2, 3, 4, 5A, 5B, 6단계의 점수와 A, M점수 및 한 개인의 도덕 판단력 수준을 총괄적으로 표시해 주는 P점수와 D점수로 나타난다. 이때의 P(%)점수는 각 갈등상황의 12개의 질문 중에서 피험자가 중요하다고 순위매긴 4개의 질문 문항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데 이 점수는 피험자의 도덕적 사고 중에서 5, 6단계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D점수는 모든 질문 하나 하나에 1점에서 5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데 이 점수는 피험자의 인습이전, 인습적 도덕 판단 수준에 비해 원리적 도덕 판단 수준의 사고를 선호하는 경향을 알아보는 지수이다(문미희, 1991 : 10-13).

한국의 DIT는 「생활문제 설문지」라는 이름으로 문용린이 번역하였으며 딜레마와 문항의 개수만 다를 뿐 미국의 DIT와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딜레마는 <납편의 고민>, <탈옥수>, <의사와 환자>의 세개로 이루어져 있고 36문항(3개 딜레마×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3. 도덕적 사고와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도덕에 있어서 '알면 행할 것'이라는 주장은

Socrates가 ‘덕 *arete*은 지식 *episteme*이다’라고 한 이후 여러 세대의 철학자들의 주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다(전홍대, 1991: 5).

도덕성은 궁극적으로 도덕적 행동에 달려 있고 도덕성 발달 연구는 도덕적 행동을 궁극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Blasi, 1980: 1). 인지발달론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사고를 발달시키면 자연히 도덕적 행동을 일으킨다고 본다. 즉 도덕적 사고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 사고 자체가 도덕적 사태에 대한 인지적 해석을 포함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지, 결코 도덕적 가치가 갖는 정서적이거나 태도와 같은 동기가 행동을 촉발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문용린, 1988a: 148). 그래서 도덕적 딜레마를 제공하여 도덕적 사고력을 높이는 것이 도덕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지름길이며 도덕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덕성 발달의 제일 높은 단계인 6단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문용린, 1988b: 19). 따라서 인지발달론에서는 도덕적 사고와 행동의 직접적 관계에 관심을 가졌고, 연구도 주로 도덕성의 발달 수준과 행동적 지표 사이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추정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이런 기존의 많은 연구들의 결과는 도덕적 사고의 수준이 도덕적 행동에 주는 영향이 강하지는 않지만(Scott, 1987: 265), 분명히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Blasi에 의하면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 데모, 시험부정, 죄수 등의 영역에 관한 기존의 75개의 연구 중에서 57개(76%)의 연구가 도덕적 사고와 행동간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고 하였다(문용린, 1988a: 148). 특히 비행에 관해서는 1970년 이후로 J. Hickey, L.Kohlberg, P.Scharf 등이 인지발달 이론을 비행청소년 문제에 적용시켜 연구해 왔

는데, 이러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리를 발견하였다(Scharf: 222).

첫째, 많은 비행자들은 법의 사회적 의미와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덜 성숙한 도덕적 사고수준에 있다. 둘째, 그런 비행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비행은 준법의식을 가진 청소년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비행자가 옳고, 합리적이라고 믿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저질러진 것일 수도 있다. 셋째, 보통의 비행자는 일반청소년보다 덜 성숙한 경향이 있는 반면 비행자들은 도덕적 판단에 있어 높은 정도의 다양성을 보인다. 즉 모든 비행자가 다 도덕적으로 고착되어 있다는 것은 오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도덕적 사고와 도덕행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비행의 개념을 사용하는데는 몇 가지 개념적, 이론적 문제점이 있다(Blasi, 1980: 11). 첫째는 ‘도덕적 사고와 비행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이다. 즉 이기심, 실용성, 상대주의, 기회주의 등 Kohlberg의 인습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비행을 일으키는 일관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인습이전 단계에 있지 않더라도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은 전술한 첫째, 둘째 공리에서 처럼 항상 존재한다.

두번째 문제는 비행의 종류 문제이다. 비행은 마약, 절도, 성폭행 등 수많은 종류가 있고 이런 비행의 종류들이 모두 일관되게 똑같은 정도로 도덕적 사고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Kantner(1976)는 비행의 종류를 재산성 폭력, 비재산성 폭력, 약물 관련 비행, 무폭력 재산성 비행의 네 범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이들 사이의 도덕적 사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한 반면,

Kohlberg & Freundlich(1977)는 악물관련 비행자가 다른 비행자보다 높은 도덕적 사고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Blasi, 1980: 11). 이처럼 비행의 종류에 따라 도덕적 사고와 비행과의 연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집단간 비교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은 첫째 개인적 차원이라 할 수 있는 도덕적 행동과 사고를 집단화하는 문제와 둘째로 제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비행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도덕적 사고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잠재적 비행을 포함하기 위하여 좁은 의미의 문제행동의 개념, 즉 범죄와 같은 비행보다는 그 정도가 약한 문제행동의 개념을 도입하고, 여러 학자들의 분류와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한 6 가지 문제행동 영역 유형별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하여 도덕적 사고와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행동을 집단화하는데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분석과 집단적 차원에서의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비행에 관한 연구가 비행유형에 따른 경중, 이질성을 무시하고 단지 빈도에 의존한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행의 경중과 빈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제행동 유형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문제행동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2) 문제행동의 유형별 경험 정도와 도덕판단수준과의 관계를 밝혀내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표집 및 도구

표집대상은 서울시내 7개 고등학교(인문 6개, 실업 1개) 1, 2학년 학생으로 7월 한달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다. 모두 342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사례는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모두 294개였다. 표집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조사도구는 Rest 가 개발한 객관식 DIT를 문용린이 번역한 한국어판 '생활문제설문지'와 연구자가 제작한 '문제행동설문지'를 함께 사용하였다.

문제행동설문지는 Sheu(1986)청소년 연구원(1990), 형사정책연구원(1989), 이성진·박성수(1984)에서 사용된 문제행동 유형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념정의한 문제행동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21개의 문제 행동에 관한 문항을 만들었다.

그리고 문제행동의 경험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는 0점에서 4점까지 주어졌다.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그 횟수의 정도가 같은 비중을 가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3가지 경우로 나누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첫째로 음주, 전화폭언, 음란물, 음란비디오, 흥기소지, 노름, 부모속임(부모 속여 돈 타내기), 쿨닝의 8가지의 유형은 무경험, 1-3회, 4-10회, 11-20회, 21회 이상에 대하여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가중치를

<표 4>

표집의 특성

N=294(100.0%)

	성 별		경제적 배경				계 열		
	남	여	상	중상	중	중하	하	인문	실업
빈도	189	101	17	26	85	92	23	237	53
(%)	(65.2)	(34.8)	(7.0)	(10.7)	(35.0)	(37.9)	(9.5)	(81.7)	(18.3)

부여하였다. 둘째로 디스코장, 사창가 출입, 성관계, 약물복용, 가출, 집단싸움, 폭행, 기물파손, 무단결석, 회롱, 절도, 강도 등 12가지 유형은 무경험, 1회, 2-4회, 5-10회, 11회 이상에 대하여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흡연은 무경험, 하루에 1-5개피, 6-10개피, 11-15개피, 15개피 이상에 대하여 각각 0점에 4점까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2. 통계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기법은 DIT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대상학생의 P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M 점수가 8보다 큰 부적절한 사례와 설문에 불성실한 응답을 한 사례를 제외하였고 통계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모두 294사례였다. 연구에 사용된 통계기법은 변량분석과 상관관계로 SPSSPC+(v.3.0)를 사용하였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그래서 도덕적 사고의 척도로서는 도덕판단 수준인 DIT의 P 점수를 사용하였고 도덕적 행동으로서는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 문제행동 경험횟수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그 척도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Kohlberg의 도덕 발달 이론에 따

라 도덕판단수준(P점수)이 낮을수록 문제행동 경험횟수가 많아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비행, 범죄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도덕수준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 범죄나 비행보다는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행동도 도덕판단수준과 관계가 있다면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은 다시 한번 검증되는 셈이며 문제행동도 단순히 청소년에 흔히 할 수 있는 일시적 행동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서 도덕적 사고와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행동 유형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제행동 경험정도와 유형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의 유형을 여러 학자들의 분류와 우리나라 현실에 기초하여 재산형 문제행동, 폭력형 문제행동, 은둔적 문제행동, 반항적 문제행동, 성적 문제행동, 비열한 문제행동 등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표 5>를 보면 6가지 문제행동 영역별 21가지 문제행동 유형에 대하여 그 정도(무경험에서 4단계까지)별로 응답결과가 나타나 있다.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문제

&lt;표 5&gt;

문제행동의 유형별 경험 정도

N=290(100.0%)

		무경험(0점)	1단계(1점)	2단계(2점)	3단계(3점)	4단계(4점)
재산형 문제행동	부 모 속 입	41.4	35.5	16.6	3.4	3.1
	절 도	79.0	12.1	5.9	2.8	0.3
	강 도	96.2	1.7	1.0	0.3	0.7
	노 립	46.9	29.0	15.2	3.8	5.2
폭력형 문제행동	전 화 폭 언	85.5	8.3	3.8	0.3	2.1
	홍 기 소 지	91.4	7.2	1.0	—	0.3
	집 단 싸 움	91.7	4.5	2.1	1.0	0.7
	폭 행	75.9	9.0	11.4	2.1	1.7
	공공기물파손	82.4	7.9	8.3	0.7	0.7
은둔적 문제행동	음 주	72.1	13.1	10.0	1.0	3.8
	흡 연	89.0	4.5	3.8	1.7	1.0
	약 물 복 용	98.6	—	1.4	—	—
	디스크오장 출입	91.4	3.8	3.1	0.7	1.0
반항적 문제행동	가 출	95.5	2.8	1.7	—	—
	무 단 결 석	94.5	3.8	1.0	0.3	0.3
성적 문제행동	사 창 가	98.3	1.0	0.3	—	0.3
	성 관 계	95.9	0.7	2.4	0.7	0.3
	음란물 소지	60.0	26.9	8.3	2.4	2.4
	음란비디오	54.8	35.2	6.9	1.4	1.7
	회 롱	87.9	3.8	4.8	2.4	1.0
비열한 행동	권 닝	45.9	38.3	12.1	2.1	1.7

행동 유형은 부모를 속여서 돈타내기(59.6%), 다음이 권닝(54.1%), 노립(53.1%), 음란비디오 보기(45.2%), 음란물 소지(40.0%) 등의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음주(27.9%)와 흡연(11.0%)이 다른 조사에 비해 매우 낮은 경험비율을 보인 것은 단순히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음주의 경우에는 술집에 출입해서 음주행위를 하였는지를 질문하였고, 흡연의 경우에는 상습적인 흡연경험 여부를 질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운

진·구창모·정문성의 연구에서는 음주 경험이 남 : 52.9% 여 : 27.2%였고 흡연 경험이 남 : 38.8% 여 : 5.0%로 조사되었다.)

<표 6>은 21개 문제행동 유형간의 문제행동 경험정도의 가중치에 근거한 상관관계를 계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차원에서 그 성질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실제 문제행동은 그 문제행동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성질보다는 문제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요인이 더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문

<표 6>

문제행동 유형간의 상관관계

	음주	흡연	디스크장	사창가	성관계	전화폭언	약물복용	음란물	음란비디오	홍기소지	노름	가출	집단싸움	폭행	기물파손	무단결석	희롱	컨닝	절도	강도	
음주																					
흡연	.61																				
디스크장	.47	.52																			
사창가	.14	.13	.20																		
성관계	.35	.34	.56	.65																	
전화폭언	.15	.16	.18	.10	.10																
약물복용	.24	.14	.26	.20	.43	.04															
음란물	.04	.04	.06	.02	.05	.25	.02														
음란비디오	.38	.28	.33	.07	.23	.22	.24	.47													
홍기소지	.26	.26	.39	.13	.29	.18	.34	.14	.27												
노름	.13	.11	.06	.01	.06	.19	.06	.43	.26	.12											
가출	.27	.35	.58	.22	.35	.07	.27	.04	.17	.46	.01										
집단싸움	.44	.47	.30	.15	.34	.02	.45	.16	.38	.29	.18	.27									
폭행	.37	.36	.32	.12	.27	.16	.24	.28	.41	.27	.35	.19	.54								
기물파손	.11	.11	.17	.09	.11	.27	.12	.19	.19	.28	.28	.19	.21	.36							
무단결석	.15	.25	.46	.13	.34	.08	.20	.05	.08	.16	.02	.58	.16	.13	.05						
희롱	.25	.30	.30	.03	.24	.24	.24	.13	.16	.32	.24	.22	.18	.26	.24	.04					
부모속임	.32	.20	.26	.07	.27	.10	.25	.11	.27	.26	.13	.19	.22	.25	.24	.14	.35				
컨닝	.25	.06	.14	.07	.11	.35	.14	.16	.25	.15	.20	.11	.11	.25	.17	.05	.34	.28			
절도	.10	.14	.15	.05	.10	.06	.15	.23	.22	.25	.16	.20	.14	.18	.22	.11	.21	.33	.30		
강도	.19	.20	.33	.71	.56	.17	.45	.14	.18	.47	.06	.32	.24	.25	.22	.10	.31	.25	.15	.24	

제행동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문제행동의 영역별 분류에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줄 수 있다.

<표 6>에서 .40이상의 상관이나 나타난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음주와 흡연은 디스코장, 집단싸움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성관계와 사창가 출입은 강도와 높은 상관이 있고, 약물복용은 성관계, 강도, 집단싸움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음란물 소지는 음란비디오 보기, 노름과 상관이 높고, 흥기소지는 가출과 강도와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출은 무단결석, 디스코장 출입과 관계가 높고, 폭행은 집단싸움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화폭언, 기물파손, 회롱, 부모속임, 컨닝, 절도 등은 .40이상의 상관을 가진 유형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 행동 유형 간의 상관 관계를 보면 문제행동 유형들 간의 밀접한 관계는 인과적 관계 또는 비슷한 성질 등에만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음주, 흡연, 디스코장, 집단 싸움등의 관계는 주로 동료 집단이나 환경 등에 더욱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은 문제행동의 분류에 있어서 문제행동이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것인가,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것인가 등의 문제행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상의 분류보다는 그 문제행동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기초한 분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2. 도덕판단 수준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도덕성에 대한 인지발달론에서 보면 도덕판단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비도덕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행동은 도덕판단 수준이 높을수록

덜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 범죄와 도덕적 판단 수준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밝혀진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비행의 정도가 약한 문제행동의 차원에서 이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의 방식은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으로서 문제행동의 경험정도에 부여된 가중치에 근거한 평균점수와 도덕판단 수

<표 7> 가중치를 부여한 문제행동 점수와 P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N=294(100.0%)	
		평 균	표준편차
재산형 문제행동	부 모 속 임	.91	1.00
	절 도	.33	.74
	강 도	.08	.44
	노 림	.91	1.11
폭력형 문제행동	전 화 폭 언	.25	.73
	흥 기 소 지	.11	.40
	집 단 싸 움	.14	.56
	폭 행	.45	.90
	공공기물파손	.29	.71
은둔적 문제행동	음 주	.51	.99
	흡 연	.21	.69
	약 물 복 용	.03	.23
	디스코장 출입	.16	.60
반항적 문제행동	가 출	.06	.30
	무 단 결 석	.08	.40
성적 문제행동	사 창 가	.03	.28
	성 판 계	.09	.46
	음란물 소지	.60	.92
	음란비디오	.60	.82
	회 롱	.25	.74
	비열한 문제행동	컨 닝	.76
P점수		39.55	14.81

준의 P점수와와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고 또 하나는 집단간의 비교로 각 경험정도가 다른 5단계(무경험 포함)의 각집단 평균점수를 도덕판단 수준의 P점수로 변량분석 하였다.

우선 <표 7>은 가중치를 부여한 문제행동 유형별 점수와 P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가장 경험점수가 높은 것은 부모속여 돈 타내기(.91), 노름(.91), 컨닝(.76), 음란물 소지(.60), 음란비디오 보기(.6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에서의 문제행동 경험유무에서는 컨닝

이 노름보다 더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가중치를 부여하였을 때는 노름이 더 높은 경험 정도를 나타내었다.

<표 8>은 문제행동 경험정도의 단계별 평균점수를 도덕판단 수준의 P점수로 변량 분석한 것이다. 변량분석의 결과 .10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재산형 문제행동에서 절도, 폭력형 문제 행동에서 전화 폭언과 공공기물 파손, 성적 문제행동에서 음란비디오의 4가지 유형에 불과하였다. 또한 대부분 3, 4단

<표 8> 도덕판단수준(P점수)에 의한 문제행동 경험정도별 집단간 변량분석

		무경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F	P
재산형 문제행동	부 모 속 임	39.9	40.4	36.8	38.3	41.1	.54	.708
	절 도	40.2	38.6	39.8	25.4	43.3	1.98	.097
	강 도	39.6	36.0	36.6	60.0	35.0	.62	.649
	노 림	40.0	39.5	39.5	31.8	41.8	.86	.489
폭력형 문제행동	전 화 폭 언	39.8	33.5	51.5	50.0	30.6	3.61	.006
	홍 기 소 지	39.7	40.2	33.3	-	16.7	.98	.402
	집 단 싸 움	39.8	37.2	36.7	43.3	30.0	.41	.804
	폭 행	39.7	38.4	40.4	40.0	32.7	.33	.854
	공공기물파손	39.3	36.8	44.9	51.7	21.7	2.06	.086
은둔적 문제행동	음 주	40.2	40.3	36.8	33.3	34.5	.81	.518
	흡 연	39.7	43.7	34.9	34.7	37.8	.67	.610
	약 물 복 용	39.6	-	33.3	-	-	.71	.398
	디스크장 출입	40.0	38.9	34.1	25.0	31.1	1.09	.361
반항적 문제행동	가 출	39.6	42.5	31.3	-	-	.94	.392
	무 단 결 석	39.7	42.1	33.2	13.3	30.0	1.11	.352
성적 문제행동	사 창 가	39.6	31.1	43.3	-	53.3	.63	.597
	성 관 계	39.7	53.3	32.4	23.4	53.3	1.67	.157
	음란물 소지	39.0	42.4	37.4	35.7	33.1	1.33	.257
	음란비디오	41.5	37.5	36.1	50.0	24.0	3.40	.009
	회 룡	40.0	40.0	37.3	31.4	33.3	.78	.538
비열한 문제행동	컨 닝	38.9	39.9	41.1	40.0	38.0	.19	.944

계에 있는 응답자들의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점수를 대표치로 인정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10사례 미만의 단계별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21가지 모든 문제행동 경험정도가 도

<표 9> 문제행동 유형과 도덕판단수준(P점수)과의 상관관계

유 형	상관관계 (r)	유의도 (p)
재산형 문제행동	-.07	.111
부 모 속 임	-.04	.264
절 도	-.11	.031
강 도	-.01	.462
노 름	-.03	.321
폭력형 문제행동	-.03	.304
전 화 폭 언	-.02	.355
홍 기 소 지	-.07	.124
집 단 싸 움	-.05	.222
폭 행	-.03	.323
공공기물파손	.04	.250
은둔적 문제행동	-.11	.036
음 주	-.10	.049
흡 연	-.05	.202
약 물 복 용	-.05	.199
디스크장 출입	-.11	.026
반항적 문제행동	-.07	.120
가 출	-.05	.220
무 단 결 석	-.07	.104
성적 문제행동	-.12	.018
사 창 가	.03	.301
성 관 계	-.06	.162
음 란 물 소 지	-.04	.258
음란비디오 보기	-.15	.005
회 룡	-.09	.054
비열한 문제행동	-.03	.288
컨 닝	-.03	.288

덕판단 수준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표 9>은 문제행동 경험정도에 부여된 가중치에 근거한 평균점수와 도덕판단 수준의 P점수와의 상관관계이다. 공공기물 파손과 사창가 출입을 제외하고는 19개 문제행동 모두가 역상관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거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6가지 영역별로는 성적 문제행동(-.12), 은둔적 문제행동(-.11), 반항적 문제행동(-.07), 폭력형 문제행동(-.03), 비열한 문제행동(-.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으로는 음란비디오(-.15), 절도(-.11), 디스크장 출입(-.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두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관으로 도덕 판단 수준과 문제 행동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두 경험적 검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문제행동과 도덕적 판단수준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도덕적 사고의 발달이 도덕적 행동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이러한 결과는 문제행동을 도덕적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 결과에 따른다면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그의 도덕성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Kohlberg의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도덕 판단 수준과 문제행동 경험정도와 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범법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 비행 또는 범죄가 도덕 판단 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보다 그 정도가 약한 문제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 수준과의 연구는 없었다. 문제행동도 도덕판단 수준과 관계있음이 밝혀진다면 Kohlberg의 인지발달이론은 더욱 정교하게 검증되는 셈이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도덕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이 확인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집단간의 비교에 치우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상관관계)과 집단간 비교(F 검정)를 병행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294명의 응답지를 분석하여, 도덕판단 수준으로는 Rest의 DIT의 P점수를 계산하였고 문제행동은 6가지영역 21가지의 문제 행동에 그 경험 정도에 따라 0점에서 4점까지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첫째,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경험한 문제행동은 부모 속여 돈타내기(59.6%), 컨닝(54.1%), 노름(53.1%), 음란비디오 보기(45.2%), 음란물 소지(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문의 성격이나 조건에 따라 학생의 응답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문제행동의 분류는 그 문제행동이 가진 성질이나 특징에 기초 할 수도 있으나 그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에 기초한 분류등 문제행동 분류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도덕판단 수준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는 개인적 차원에서나 집단비교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 행동은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와는 달리 도덕적 차원에서 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 지도가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 참 고 문 헌

- 김민남(1988), 도덕발달이론, 서울:교육과학사.
- 문미희(1991), 도덕 판단력 검사(DIT)의 문항 적절성 분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1988a), 도덕과 교육론, 서울:김을출판사.
- \_\_\_\_\_ (1988b), "콜버그의 도덕교육론", 사학가을호.
- 박찬주(1989), 한국인의 도덕판단과 행동선택에 관한 적용연구, 전국대 박사학위논문.
- 손봉호(1986), "Kohlberg와 자연주의 오류", 청약 이영기박사 정년기념 논문집:서울대출판부:509.
- 심영희(1981), "한국의 "숨은 비행"의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15집, 한국사회학회 87(73-125).
- 유현실(1988), 도덕, 도덕성, 도덕교육에 대한 종합적 고찰—Durkheim과 Kohlberg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전홍대(1991), 도덕 교육에 있어서 지와 행의

-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 정향인(1989),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인지 발달 수준과 도덕 판단능력 비교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장성모(1986), “Kohlberg와 Peter의 도덕교육 이론 분석”, 도덕교육연구 제3집, 한국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회 : 67.
- 이성진·박성수(1984), “학생비행 예방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 이홍우(1977), “도덕교육의 인지적 접근은 과연 가능한가”. 서울 사대논총 16집 : 38
- 최윤진·구창모·정문성(1990), 청소년 문제 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1),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추병환(1987), 콜버그 도덕적 추론의 가치교육에의 적용과정,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Blasi,A.(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 Moral Action:A Critical Review of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1).
- Clinard, M.B.(1963), *Sociology of Deviant Behavior*,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Cohen,A.K.(1959), “The Study of Social Disorganization and Deviant Behavior.”, In R.K.Merton, L.Broom & L.S.Cottrell, Jr(ed), *Sociology Today:Problems and Prospects*, N.Y.: Basic Books.
- Docking,J.(1989), “Elton’s Four Question: Some General Consideration.” In N. Jones(ed), *School Management and Pupil Behavior*, The Falmer Press.
- Dubin,R.(1959), “Deviant behavior & social structure : Continuities is soci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4 N.2.
- Kantner,J.E.(1975),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Judgement and Personality Variables in Adult Offenders*, Doctori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 Kohlberg,L.(1958), *The Development of Modes of Moral Thinking and Choice in the years ten to sixteen*, Dod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_\_\_\_\_ (1985), 도덕 발달의 철학,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김봉소·김민남(역), 서울 ; 교육과학사.
- Kohlberg, L., & D.Freudlich(1977), *Moral Judgement in Youthful Offenders*, Unpublished manuscript,Havard university.
- Merton,R.K.(1961), “Social Problems and Sociological Theory”, In R.K. Merton & R.A.Nisbet(ed),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Y.: Harcourt, Brace & World.
- Puka, B.(1981), “An Interdisciplinary Treatment of Kohlberg”, *Ethics*, April.
- Rest,J.R.(1986), *Moral Development*, N.Y.: Praeger Publisher.
- Scharf,P.(현도미상), “The Moral Education of the Juvenile Offender: A Social Dilemma in Cochrane & Manley-Casimir”, *Development of Moral Resoning*, N.Y.: Praeger Publisher.
- Scott,K.(1987), “Missing Developmental Respectives in Moral Education”,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15(4).
- Sheu, C.J.(1986), *Delinquency and Identity*, N. Y.: Harrow and Heston Publishers.

總理府 青少年 對策本部(1982), 不良行爲青少年の實態と對策に關する 調査(青少年問題 研究 調査報告書).

\_\_\_\_\_ (1990), 青少年問題の現象と對策.